

대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 분석

Analysis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Collegiate' Sport Participation

신좌중
한국체육대학교

Shin, Jwa-Jung
Korea National Sports Univ.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를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4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로 성, 소속대학, 가계소득수준, 주관적 사회계층, 참여빈도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여 무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11부를 제외한 389의 설문지를 토대로 SPSS 12.0을 이용,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시켰다. 첫째, 성에 따라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있다. 둘째, 소속대학에 따라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있다. 셋째,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없다. 넷째,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라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없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betwee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ports participation. To subject who answered to givev questionaire was 389 persons. To analyze materials, χ^2 analysis used as statistic analysis technique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significants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sports participation. Secondly, there was significants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 department and sports participation. Thirdly, there was not significants relationship between house income and sports participation. Lastly, there was not significants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ocial-class and sports particip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대학은 전인적 교육보다는 기능적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인간 본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전인을 형성하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첨단 산업사회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와 만성적 사회병리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스포츠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회복케 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임번장, 2000).

스포츠는 인간의 생리적 활동, 학업 및 직업적 노동과 생명 연장에 적, 간접적으로 활력소가 되며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스포츠의 적, 간접적인 참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중, 고등학교 시절에 규제된 교육환경 및 가정의 입시 지향적 교육 분위기 속에서 기계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길들여진 나머지 대학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선택과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김

성천, 2001).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체육·스포츠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전인적 인간의 육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체육·스포츠에 있어서는 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스포츠 현장에서의 다양한 형태 및 정도의 발생조건과 관련하여 많은 학문적 연구가 진전되면서 대학생의 특성이 자연성·형구성·필연성에 관한 이론을 포함하여 스포츠가 대학생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하여 발전되어 왔다(구창모, 1985; 임번장 외, 1985).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 빈도 분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여 대학생들에 있어서 체육활동은 균형 있고 강인한 신체를 발달 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서 및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등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볼 때, 이들 대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 빈도 규명은 체육교과 비중의 상대적인 저하에 따른 7차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대학에서 전인교육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미래 역군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가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I, 성에 따른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소속대학에 따른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I,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시 소재 배재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며, 연구 대상의 표집은 유층집락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대상의 표본 추출 절차는 먼저 배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 틀을 작성한 다음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선 표집 하였다. 학생은 남·여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총 400명을 표집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한 최종 인원은 389명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대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 빈도 분석에 관한 조사” 설문지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이미 국내, 외 선행논문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받아 사용했던 김성천(2002)의 “사회계층적 특성이 중학생의 스포츠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설문지와 김성영(1989)의 “대학생의 사회계층적 배경과 스포츠 참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췌한 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3. 조사절차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조사 대상 학교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으로 설문 내용에 응답을 기입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 자료 중에서 기재 내용이 부족하거나 자료 검색 과정에서 응답 내용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유효 표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분석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여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SPSS/PC+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별 통계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통계처리 방법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 소속대학, 가계소득수준,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여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및 논의

1. 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

본 연구의 가설 I은 “성에 따라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에 관한 χ^2 검증결과

참여 빈도	성		계
	남	여	
전혀 안함	33(15.1%)	95(55.6%)	128(32.9%)
주 1일	69(31.7%)	45(26.3%)	114(29.3%)
주 2일	52(23.9%)	12(7.0%)	64(16.5%)
주 3~4일	37(17.0%)	13(7.6%)	50(12.9%)
주 5~6일	17(7.8%)	4(2.3%)	21(5.4%)
매일	10(4.6%)	2(1.2%)	12(3.1%)
계	218(100%)	171(100%)	389(100%)

$\chi^2=80.481$

p<0.01

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55.6%가 주 1~2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주 3~4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9.4%, 여학생은 11.1%가 주 3~4일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스포츠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6%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대학생들은 주 3일 이상 운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체육시설 열악함과 이용에 따른 어려움, 스포츠 활동 동아리의 저조 및 어려운 경제난에 의한 취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학업, 스포츠 참여 등기의 부족 등으로 사료된다.

[표 2] 소속대학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에 관한 χ^2 검증결과

참여빈도	인문대학	외국학대학	사회대학	관광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계
전혀안함	13(43.3%)	32(49.2%)	16(26.7%)	24(41.4%)	14(27.5%)	14(20.9%)	15(25.9%)	128(32.9%)
주 1일	9(30.0%)	19(29.2%)	17(28.3%)	20(34.5%)	17(33.3%)	26(38.8%)	6(10.3%)	114(29.3%)
주 2일	4(13.3%)	5(7.7%)	13(21.7%)	9(15.5%)	13(25.5%)	12(17.9%)	8(13.8%)	64(16.5%)
주3-4일	2(6.7%)	2(3.1%)	7(11.7%)	3(5.2%)	6(11.8%)	8(11.9%)	22(37.9%)	50(12.9%)
주4-5일			4(6.7%)	4(6.7%)	2(3.4%)	1(2.0%)	5(8.6%)	21(5.4%)
매일	2(6.7%)	3(4.6%)	3(5.0%)			2(3.0%)	2(3.4%)	12(3.1%)
계	30(100.0%)	65(100.0%)	60(100.0%)	58(100.0%)	51(100.0%)	67(100.0%)	58(100.0%)	389(100.0%)

 $\chi^2=77.423$ p<0.01[표 3]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에 관한 χ^2 검증결과

참여 빈도	가계소득수준					계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전혀 안함	19(33.9%)	16(22.2%)	47(43.4%)	27(33.3%)	18(25.7%)	127(32.9%)
주 1일	18(32.1%)	27(36.1%)	29(27.4%)	19(23.5%)	20(28.6%)	113(29.3%)
주 2일	6(10.7%)	12(16.7%)	16(15.1%)	17(19.8%)	14(20.0%)	65(16.5%)
주 3-4일	9(16.1%)	10(13.9%)	14(12.3%)	10(12.3%)	8(11.4%)	51(12.9%)
주 5-6일	3(5.4%)	4(5.6%)	1(0.9%)	8(9.9%)	5(7.1%)	21(5.4%)
매 일	1(1.8%)	4(5.6%)	1(0.9%)	1(1.2%)	5(7.1%)	12(3.1%)
계	56(100%)	73(100%)	108(100%)	82(100%)	70(100%)	389(100%)

 $\chi^2=30.230$ p>0.05[표 4]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에 관한 χ^2 검증결과

참여 빈도	주관적 사회계층			계
	상	중	하	
전혀 안함	24(27.6%)	71(33.3%)	33(37.1%)	128(32.9%)
주 1일	29(33.3%)	60(28.2%)	25(28.1%)	114(29.3%)
주 2일	13(14.9%)	38(17.8%)	13(14.6%)	64(16.5%)
주 3-4일	13(14.9%)	26(12.2%)	11(12.4%)	50(12.9%)
주 5-6일	4(4.6%)	13(6.1%)	4(4.5%)	21(5.4%)
매 일	4(4.6%)	5(2.3%)	3(3.4%)	12(3.1%)
계	87(100%)	213(100%)	89(100%)	389(100%)

 $\chi^2=4.266$ p>0.05

2. 소속 대학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

본 연구의 가설 II는 “소속대학에 따라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속대학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소속대학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3일 이상 스포츠 참여가 예술대학(49.9%), 공과대학(22.4%), 사회대학(18.4%) 순으로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스포츠 참여를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주1회 정도 참여가 62.2%로 나타나 대부분 학생들이 스포츠 참여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대학의 경우 스포츠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스포츠학과가 예술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

본 연구의 가설 III은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스포츠 참여

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는 가계소득수준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4.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

본 연구의 가설 IV는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라 스포츠 참여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포츠 참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상:27.6%, 중:33.3%, 하:37.1%)와 주 3-4회 이상 참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상:24.1%, 중:20.7%, 하:20.2%)로 스포츠 참여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아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사회계층과 무관하게 많은 국민들이 가벼운 등산이나 걷기 등 개인운동 참여와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IV. 결 론

오늘날 스포츠는 사회의 지배적 가치 및 태도를 반영하는 축소판이며, 스포츠 활동 경험은 특정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규범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적의 수단을 제공한다. 실제로 학교 기관에서의 체육·스포츠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김홍설, 1998).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도에 관한 분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기와 함께 대학생에 있어서도 체육활동은 균형 있는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및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등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볼 때,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선호도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 유층집락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400명을 추출, 본 연구에 사용한 최종 인원은 38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대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스포츠 참여빈도에 관한 관계 분석”에 관한 설문지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 설문 내용에 응답을 기입,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 유효 표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사용하여 분석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여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시켰다.

첫째, 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소속 대학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는 주 3일 이상 스포츠 참여가 예술대학(49.9%), 공과대학(22.4%), 사회대학(18.4%) 순으로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스포츠 참여를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주1회 정도 참여가 62.2%로 나타나 대부분 학생들이 스포츠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여도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 고 문 헌 ■

- [1] 구창모(1985),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 [2] 김성영(1989), 대학생의 사회계층적 배경과 스포츠 참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 [3] 김성천(2002), 사회계층적 특성이 중학생의 스포츠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4] 김홍설(1998), 중, 고등학생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스포츠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 [5] 임번장 외(1985), 사회계층과 스포츠 선호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논총, '86-'88 올림픽 스포츠 과학 학술대회 조직 위원회, 63-87.
- [6] 임번장(2000),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동화문화사.